"지자체 5개 권역 경제블록화"

'도지사 출마' 김윤덕 의원, 생명바이오산업권역 등 구체적 방안 제시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전주 갑) 국회의원이 "경제블록화와 로컬파워 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의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윤덕 의원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묶는 5개 권역 경제블록화'와 '로컬파워 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의 경제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5개 권역 경제블록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생명바이오산업권역, ▲제조업의 신디지털 르네상스권역, ▲스마트그린 광역 경제권역, ▲서해안 6차 산업 관광 벨트권역, ▲차세대 공공건강증진권역 등을 통해 전북의 각 지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묶는다. 또한, 경제혁신특별회계 5,000억원 조성, 도지사 직속 기술자금투자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탄탄한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대내외 경제 환경은 갈수록 규모화를 통해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며 "전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익산을 중심으로 2기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농생명 종자부터 가공, 유통까지 데이터 구축, 농생명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전북의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약속했다.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인 김윤덕 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군산-익산-완주-김제를 중심으로 쇠퇴 제조업을 새롭게 탈바꿈 시키는 신디지털 르네상스 시대를 열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래 산업은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농생명 산업에 이를 접목하고, 차세대 수소전기자동차, 친환경해양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소전기스마트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또한, RE100 산업단지, 태양광,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동아시아 최대의 선순환 그린에너지하이웨이 단지 조성을 통해 전주-익산-완주-김제-군산-부안을 '스마트그린산업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군산 근대문화, 고군산벨트, 고창 구시포 등 군산-김제-부안-정읍-고창을 하나로 묶어 '서해안 6차 산업 관광벨트권'을 조성하고,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는 해양치유 실크로드 육성, 해양 관광 대기업 유치 등을 통해 전북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무주-진안-장수-임실-남원-순창을 공공보건의료대학원 및 간호대학 설립, 고령자 건강케어증진지구 조성 등을 통해 공공건강증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정읍, 첨단산업 · 농업 융복합지역으로"

'도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내장산리조트 연결도로 건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등 제시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인 안호영 국회의원(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은 7일 "정읍시를 첨단산업과 관광인프라, 살기 좋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 융복합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권 교통중심지인 정읍에는 연구개발특구가 있고, 정읍사와 내장산을 지닌 문화관광도시"라며 정읍시 발전 7대 비전을 발표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7대 비전은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아파트형 스마트공장을 통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첨단2단계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변환 추진,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건설, ▲농림부 선정 농촌협약사업 유치, ▲새만금~정읍~남원 고속도로 건설, ▲서남권 노인치매안심센터 조성이다.

안호영 의원이 7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지역 7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정읍시 연구개발특구 내에 정부의 차세대 주력 산업인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중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정읍시는 중부권의 오송 및 영남권의 대구와 함께 K-바이오 삼각벨트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정읍시에는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농축산용 미생물을 제조하는 맞춤형 아프형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현재 정읍시가 계획 중인 첨단2단계 산업단지를 정부가 공모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에 있는 ㈜SK넥실리스나 다원시스 같은 기업과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산업을 육성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과 태양광 설비, 공용 에너지저장장치, 통합전력망을 갖춘 저탄소,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내장산과 용산호를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내장산 연결도로를 조기에 건설하도록 지원하고, 새만금~정읍~남원 고속도로를 건설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서남권 치매안심센터를 정읍시에 조성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권의 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현직 군수의 부동산 투기 의혹, 농지법 위반 · 권한 남용"

민주 부안군수 예비후보들, 사법당국에 "즉각 수사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들이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군수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사법당국의 즉각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들이 권익현 현 부안군수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규, 김성수, 김상곤 전북 부안군수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현 현 군수가 자신이 허가한 태양광사업시설 부지를 배우자 명의로 사들였고, 인근 정읍시에도 태양광시설을 매입해 투기 의혹이 있으나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 군수가 자신의 저서인 '권익현의 약속'에서 노후대비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해 고생한 아내에게 작은 선물로 줬다고 자인한 바 있다"면서 "이는 농지법 위반의혹과 권한의 사적 남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군수가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은 개발행위 허가 이전에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이뤄진 것은 '셀프 허가'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권 군수가 부안군 보안면에 한 건의 부동산만 매입한 것으로 저서에 밝혔으나,그 배우자는 2021년에 전북 정읍시의 또다른 토지를 시공업자로부터 매입해 같은해 태양광시설을 완료했다"면서 "보안면의 토지에서 정상적으로 발전이 이뤄질 경우 월 1000만원의 수익이 가능하고, 정읍의 부동산에서도 최소 월 200만원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들은 "권 군수가 재임시절 아파트 평수를 넓혀 이사하고, 군 보조금이 들어간 수소차량 구입 등도 지역신문에 보도돼 논란이 있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로서 윤리규범에 크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은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사법당국에서도 엄격적이며 비상식적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적이익 추구에 몰두한 군수의 비리를 철저히 밝혀달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기도 했다. /유호상 기자

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동물장묘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안락사를 방지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반려동물 사망 현황을 관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국민통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반려동물의 사망신고 의무가 소유주에게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했고, 미등록 동물장묘업체에서 사체가 아닌 살아있는 동물을 화장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안락사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라며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일하는 도정체제로 전면 개편"

유성엽 도지사 예비후보
전북도 기능 시 · 군 이양
인사자율권 보장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전에 참여한 유성엽 후보가 "일하는 도정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역설했다.

유 후보는 "그동안 비효율적, 비효과적인 행정체제로 인해 도민 불편은 물론, 발전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지사가 되면 도 행정체제를 전면 개편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 추진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후보는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도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시·군으로 이양하고, ▲이 과정에서 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이며, ▲시 · 군의 인사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시장 · 부군수 인사의 경우에도 시.군의 의사에 따라 자체승진 임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이러한 행정 체제 개편을 통해서 도는 2개 이상 시 · 군 현안의 광역 조정기능에 중점을 두고, 시 · 군 발굴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선정될 수 있도록 선도, 지원하는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도는 도답게, 시 · 군은 시 · 군답게' 일하는 행정체제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후보는 "지역발전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법과 제도를 뛰어 넘어 정치력을 발휘해 도지사 · 시장 · 군수와 교육감 간 거버넌스를 구축,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충분하게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선관위, 지방선거 대비
새내기유권자 연수 실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내기유권자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내기유권자 연수는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새내기유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주권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는 12월 9일까지 진행되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연수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신청학교의 희망에 따라 전문강사 출강 집합교육, 방송실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 동영상 시청 비대면 교육 중 선택해 진행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 주권 행사의 중요성, ▲새내기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새내기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정보 등에 대해 교육한다. /유호상 기자

"전북혁신도시, 교통인프라 개선 대형마트 유치 통해 황금시대 열 것"

두세훈 완주군수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예비후보인 두세훈 변호사가 "전북혁신도시가 교통인프라 및 대형마트의 미비로 군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형마트의 유치를 통해 전북혁신도시 황금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두 변호사는 "전북혁신도시의 인구는 매년 증가추세이나, 고속터미널 및 KTX역 등 교통인프라가 미비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KTX 이용객은 익산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인근에 대형마트마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두 변호사는 먼저 "전북혁신도시 인근에 고속버스터미널과 KTX역을 설치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전북혁신도시 인근에 대형마트를 유치해 주민 편의를 위한 소비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전북혁신도시 중 완주지역의 기업유치는 저조한 실정이라며,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전북혁신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거점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두세훈 변호사는 "교통인프라 확충과 대형마트 ·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전북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메카로 육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개선책을 마련해 전북혁신도시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재차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민주 도당 "불 · 탈법 여론조작에 강력 대응"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7일 논평을 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선거 브로커'를 통해 여론을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 등 당의 쇄신과 공천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등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또한,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과 과감한 혁신, 공정한 경선을 실시해서 좋은 정책경쟁을 통해 전북 발전을 이끌 후보를 선출하도록 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특정한 주소지(후보자의 선거구)로 청구지 이전 등 주소 이전의 불법성을 인지, 해당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준병 공관위원장(정읍 · 고창 국회의원)은 "여론조작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철저한 검증과 과감한 혁신, 공정한 경선을 약속한 이번 지방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결탁한 후보는 강력한 조치(후보자격 박탈 등)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신혼부부 주거 1억원 무이자 대출 지원"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지훈 예비후보(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최대 1억 원 무이자 대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롭게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해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7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목돈이 없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1억 원 무이자 대출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전주누비기', '청년에게 배우다'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시민들의 다양한 애로 · 건의사항 가운데 치솟는 주거비용으로 결혼을 뒤로 미루는 젊은이들과 결혼하는 자녀의 주거비용 지원에 따른 부담이 큰 50~60세 장년층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다.

조지훈 예비후보는 "목돈이 없는 신혼부부의 집값 부담 해소는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기에 가정을 꾸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을 공약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500억 원 규모로,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 내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에게 주거 대출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단, 대출 규모는 소득에 따라 차등,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모두 무이자이며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상환방식으로,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지만 연장된 기간에는 일정 부분 이자를 부담하도록 설계한다는 내용이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방법 중 하나인 동시에 시민의 주머니를 지켜주는 일"이라며 "기업 경쟁력 고도화로 일자리를 확대해 전주경제를 키우는 한편,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소득을 키워주는 현실적인 정책도 발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